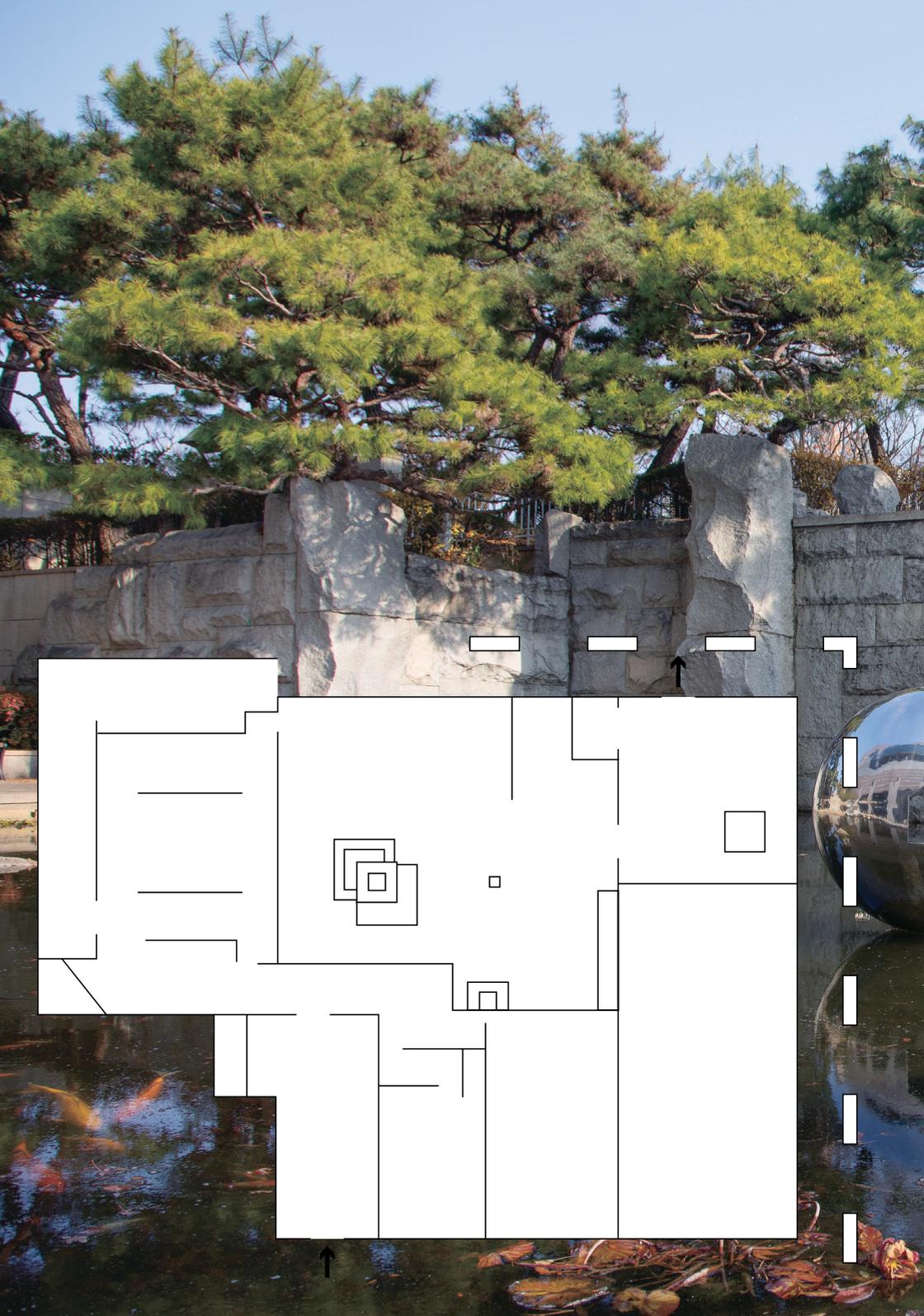


**미래에 대해 말하기
: 모양, 지도, 나무**

2023/12/13—29

**SPEAKING ABOUT THE
FUTURE
: SHAPE, MAP, TREE**





미래에 대해 말하기
: 모양, 지도, 나무

2023/12/13—29

SPEAKING ABOUT THE
FUTURE
: SHAPE, MAP, TREE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

미래에 대해 말하기 : 모양, 지도, 나무

SPEAKING ABOUT THE FUTURE : SHAPE, MAP, TREE

기간

2023년 12월 13일 — 29일

장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성산아트홀 (구) 뷔페 공간

참여작가

감성빈, 김계옥, 김익현, 박소라, 박하늘, 서신욱,
서재웅, 소목장세미, 심정수, 이다미, 이동훈,
이병호, 잭슨홍, 정현, 정희민, 주영호, 차혜림,
최고은, 최승철, 크리스 로

인터뷰

이이오카 리쿠, 제이슨 위, 테사 마리아 구아존

주최 · 주관

창원특례시, (재)창원문화재단

목차

p.4	<u>인사말</u>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p.10	<u>모양 × 나무</u> 1 차혜림 2 주영호 3 심정수 4 서재웅 5 감성빈 6 서신욱
p.5	<u>모시는 글</u> (재)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p.6	<u>전시서문</u> 미래에 대해 말하기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예술감독 현시원	p.26	<u>모양 × 지도</u> 7 김익현 8 박소라 9 최고은 10 김계옥
		p.38	<u>모양 × 지도 × 나무</u> 11 잭슨홍 12 이다미 13 크리스 로 14 정현 15 이동훈 16 정희민 17 이병호
		p.58	<u>지도 × 나무</u> 18 소목장세미 19 최승철 20 박하늘
		p.68	<u>인터뷰</u> 이이오카 리쿠 제이슨 위 테사 마리아 구아존
		p.74	전시도면과 작품목록

문화도시 창원을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장 홍남표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이 프롤로그전은 창원문화재단이
역점사업으로 개최하는 「2024년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개막에 앞서 시민과 작가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전시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래에 대해 말하기 : 모양, 지도, 나무»로
본 행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시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각비엔날레의 역사, 조각지도, 전시
담론과 동향을 공유하는 영상 상영 등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계기로, 2012년부터 조각으로 특화한 국내
유일의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해 왔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지역과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비엔날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롤로그전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20명이 참여하여 조각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문명과의 공존 공생을 보여주리라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전시를 통해 창원의 조각 역사와 조각을
통해 심미안을 기르는 한편,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현시원
예술감독님과 추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프롤로그전을 시작으로 내년 본 전시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3

반갑습니다.

지난 4개월여의 짧고도 긴 시간의 결과물인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을 시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 «미래에
대해 말하기 : 모양, 지도, 나무»는 지난 2020년,
2022년의 프롤로그 전시주제와는 다른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예전 성산아트홀 뷔페 공간을 다시
개방해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던 예전 공간의 기억과 흔적이 새로운
예술 조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즐거움과 추억,
만들기와 공유의 정신이 가득한 뷔페로 사용되었던
연회장, 주방, 결혼식장, 정원 등의 공간이 동시대 조각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문신, 김종영, 박중배, 박석원,
김영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들을 배출한
도시 '창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조각
비엔날레입니다. 문신 선생과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
함께 시간을 공유했던 저로서는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임하는 마음이 조금 남다른데다. 그러한 연유로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통해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갑진년 새해에 개최될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이번 프롤로그전으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할 현시원 예술감독과
여러 추진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진년 새해, 시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아울러 '창원조각비엔날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3

1.

«미래에 대해 말하기 : 모양, 지도, 나무»는 2024년 열릴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전망하는 프롤로그 전시다. 전시는 2024년에 열릴 비엔날레에 앞서 미래에 본격화할 질문들을 출발점에 놓고자 했다. 실로 이번 프롤로그 전시는 내년에 열릴 본 전시를 내다보는 '앞으로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미래에 대한 말하기'다. 한편 오늘날의 조각은 공간과의 관계를 넘어 시간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제작(창작)되고, 경험되며 아카이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래에 대해 말하기'라는 이름은 조각의 '시간성'을 함께 논해보자는 선언(MANIFESTO)이기도 하다. 시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놓인 조각뿐 아니라 역사, 다음 세대가 바라볼 조각적 환경, 자연과 공생하는 내일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자는 의미다.

2.

이번 전시는 조각의 도시 창원에 새겨진 수많은 조각을 둘러싼 사건과 순간들을 떠올리며 준비되었다. 문신과 김종영, 박석원을 비롯한 여러 조각가들이 나고 자란 도시는 어떤 물질적 감각과 만들기의 정신이 있을 지, 앞으로 더 탐구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전시 준비 과정은 구체적인 실행의 출발점으로서, 2024년의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수행적 여정(PERFORMATIVE ROUTE)이었다. 성산아트홀(구) 뷔페 공간을 새롭게 탐구하고, 최선 큐레이터와 함께 창원과 국내외 여러 작가들을 만났다. 창원문화재단의 캐비닛에 잘 보관된 도록들의 이미지들을 살피며 도시 곳곳의 조각 작업들을 찾았다.

'프롤로그 전시'란 작업에 비유하면 도면 그리기나 드로잉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계획이나 스케치는 완성된 작업 이상으로 가치있는 매개물로 조명된다. 즉 작업 도면이나 드로잉, 설계도와 메뉴얼은 오늘날 하나의 작업 매체이자 다른 협업자와 '함께 일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기술(테크닉)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미술은 종종 전수되기 어려운 하나의 암묵지(暗默知)로 존재한다. 체화되어 있고 실행할 수 있으나 말이나 글로 선명하게 남기기 어려운 지식이다. 그러나 도면과 계획은 완성된 작업이 보여줄 수 없는

구상과 결정의 과정들이 비교적 세세하게 남아있다. 그만큼 이러한 계획의 공유를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예술적 경험을 전수하고 사회 기저에 공유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즉 조각 작업을 구성하는 초안으로서의 계획, 대화를 위한 질문지나 메모 등은 결과를 예측해 나가는 미지의 순간에 작동하는 직관마저 활용한 창작자의 결정체다. 완성 후 사라지는 부산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에 대해 말하기 : 모양, 지도, 나무»는 동시대 조각 작업을 세 단서들(모양, 지도, 나무)을 통해 내다보고자 했다. 2024년 도시 창원을 무대로 열릴 본 전시를 '가까운 미래'로 설정하고 그 위에 밑그림이자 첫번째 메니페스토로서 동시대 조각의 말하기 방법에 접근해 나갔다. 전시장 안에서 조각에 대한 깊은 탐구와 개척 정신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업이 '모양, 지도, 나무'라는 세부 주제 안에서 파도처럼 넘나든다. 1942년생 심정수 작가의 한 번도 공개된 바 없는 작업부터 성산아트홀 정원과 분수대에 놓인 정현, 주영호 작가의 작업, 사진과 영상을 매체로 하는 김익현 작가가 새로 만든 비디오 프로젝션이 배치되었다. 또 전시에는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들의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향한 목소리 등도 담겼다. 전시에 담긴 조각을 향한 목소리들은 오늘날 세계의 예술 현장 안에서 다각도로 변화된, '조각을 바라보는 방법론'을 전면에 내세운다.

3. 모양, 지도, 나무

오늘날 조각은 '이미지의 네트워크' 안에서 관람객과 도시, 사물과 건축, 자연과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 발현된다. 먼저 '모양'은 오늘날 조각이 형식을 넘어 다양한 모양들의 양태로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지도'는 계획도시인 창원에서 모티브를 얻어 조각의 제작에 있어서 계획의 의미를 살피는다. 시청을 중심으로 그리드와 원형에 가깝게 짜여진 계획도시 창원은 한 도시의 이상이 구현된 공간 감각과 함께 마산, 창원, 진해 세 지역의 역사를 아우른다. '나무'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업 방식을

1 David Joselit, Michelle Kuo, Amy Sillman, *Shape: A Conversation*, October, 2020, pp. 135-146.
2 홍승표, 「바람따라 구름따라 디자인 기상도」, 『디자인플러스 저널 01 : 암중모색』, 디자인플러스(현실문화연구), 2008, pp. 10-11.
3 프랑코 모레티, 『그래프, 지도, 나무 - 문학사를 위한 추상적 모델』, 문학동네, 2018, p. 71.
4 데이비드 조슬릿, 「(시간에 대해) 표지하기, 스코어링 하기, 저장하기, 추측하기」, 현시원 옮김 『평행한 세계들을 꺼내기』, 현실문화A, 2018.

바라본다. 생태의 문제가 전 세계 인류의 공통된 이슈가 된 요즘, 생태학적 사고의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함께 살기'의 실천으로 공감받고 있다.

전시 공간 안에는 이 세 단서를 교차시키는 조각적 만들기 방법이 공존한다. 먼저 '모양'은 오늘날 조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포괄한다. 동시대 미술에서 '모양'이라는 개념의 강조는 작가 에이미 실먼(AMY SILLMAN)의 전시 기획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에이미 실먼은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모양의 모양-작가의 선택: 에이미 실먼 THE SHAPE OF SHAPE-ARTIST'S CHOICE: AMY SILLMAN»을 기획했다. 뉴욕현대미술관은 미술 작가가 소장품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작가의 선택' 시리즈를 1989년부터 이어왔다. 소장품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작가 개인에게 맡겨 실험과 도전의 서사를 구축하게 해온 것이다. 이 시리즈 가운데 에이미 실먼은 '모양'을 동시대 미술 작업과 미술사 바라보는 하나의 주제이자 태도로 내세웠다. 작가는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조슬릿(DAVID JOSELIT)과의 대화에서 '모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20세기 모더니즘 미술에서 모양은 시스템, 시리즈, 그리드에 대한 논의에 비해 줄곧 뒷전에 있었다", "모양이란 일종의 구성적 노동과 애착의 결실이다. (모양을) 언어적 구조와 랜덤한 윤곽선 사이의 어떤 것으로 보았다." ¹

전시장 입구에 사전의 단어처럼 하나하나 배치된 차해림 작가의 작업은 창원 의창구 팔용동 창원기계공구상가에 방문해 구입한 재료들로 제작되었다. 과거 부엌이었던 공간 천장과 벽을 타고 등과 금박으로 조각적인 울동감과 설치 특정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김계옥의 작업, 세잔의 사과 이미지와 디지털을 연관시켜 회화의 새로운 목소리를 탐구하는 정희민의 작업 등에서 평면과 입체의 조울을 발견할 수 있다. 뷔페공간 부엌에 배치된 김익현의 신작 <일영>(2023)은 한 조각가의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조각의 물성과 빛을 다루는 매체 간의 관계를 마치 그림자를 쫓아가듯 담아낸다. 최고은의 작업은 수도 설비 동파이프와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료가

지닌 힘과 작가가 직접 손으로 펼치고 분절시킨 곡선과 각도의 설계를 보여준다.

주영호 작가가 분수대에 설치한 <시작:점>(2021)의 거대한 원형 모양과 스테인리스 스틸은 지나가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거울, 만화경, 이미지를 반사하는 공의 모양을 닮았다. 이병호 작가가 만든 조각은 석고와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통해 사과 모양을 디지털 원근으로 결합하고 일상생활에 깃들 데이터와 사고의 파편을 구조화한다. 인간의 신체와 기술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며 '듣기'의 방식을 몸의 움직임과 연관시키는 박소라의 <SOFT TOUCH>(2022), 실리콘으로 된 인체 물성을 키네틱 조각으로 탐구하는 서신욱의 <SIX FEET UNDER>(2023), 공간과 설치, 조각과 비디옌을 다루며 관객으로 하여금 실제 드림을 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최승철의 작업은 모두 조각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근미래 삶의 양상을 논한다.

둘째, '지도'는 계획도시인 창원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기에서 시뮬레이션과 계획의 의미, 조각에서 계획과 설계의 의미를 살펴본다. 지도는 한 눈에 압축된 평면도이다. 이로써 공간에 대한 '공유된 지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미래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전통적 지도 이후 미래 세대가 사용하게 될 지식은 온라인 기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다. 작가 잭슨홍은 사물 제작의 도면을 통해 사물을 새롭게 탄생시키며 "도구, 인덱스, 상징의 가능성을 모두 의심"한다. ² 전후 영국에서 출발한 건축과 디자인의 한 경향이었던 '브루탈리즘(BRUTALISM)'에 착안한 작가 잭슨홍은 사물의 골조와 장식성을 묘하게 결합시킨다. 철과 분체도장으로 제작된 <SAMPLES>(2023)은 완벽히 통제된 사물의 제작 감각을 구현한다. 건축을 전공한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미술가인 크리스 로는 실크 스크린과 인쇄, 만들기들 통해 그의 '계획 구조' 자체를 뇌와 손, 공간과 가벽을 통해 연관시킨다. 이다미는 미술관 설계의 아이디어에 다른 공생의 감각과 촉감을 통해 구 뷔페공간의 회색 기둥, 그리고 별이 드는 통창 바깥으로까지 시선을 확장시킨다. 정원과 닿은 전시장 벽면에는 박하늘과 큐레토리얼 팀이 협업해 제작한 창원조각비엔날레 역대 전시장

지도와 도록에서 발췌한 조각 관련 문장들이 별자리를 이룬다.

셋째, '나무'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동시대 조각가들의 작업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분수가 물을 수직으로 내뿜고 사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나무들이 바로 보인다. 원로 조각가 심정수는 <물에 비친 청산>(2003), <호랑이를 탄 사나이>(2008) 작업을 통해 나무 조각이 지닌 힘과 온화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조각가 정현의 <서 있는 사람>(2016)은 성산아트홀 전시장 외경에 새롭게 배치되었다. 기차 레일 밑에서 레일을 지지하는 목재인 철도침목으로 제작된 3미터 60센티미터의 세 조각이 놓여진다. 나무로 된 조각상이 보여주는 생태적이며 폭넓은 세계관은 감성빈, 이동훈, 서재웅, 소목장세미의 작업에서도 이어진다. 각각의 작가들이 나무를 재료이자 방법으로 다루는 방식은 조각의 흥미진진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다채롭다.

4. «미래에 대해 말하기»의 부제인 '모양, 지도, 나무'는 2024년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본 전시가 논의하게 될 물질, 미래, 자연을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다. '모양, 지도, 나무'라는 부제는 전 스탠퍼드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의 책 제목에서 인용했다. 모레티는 문학사 서술 방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지도 만들기들 통한 문학 역사 쓰기를 시도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문학 지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 적어도 지도는 서사의 우주에 관한 하나의 전형을 제시한다. 그것을 통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 있게 재조직되고, 어떤 감춰진 패턴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³ 당연하게도 오늘날 미술사 쓰기의 방법론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조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했던 미술사학자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1990년대 말부터 '포스트 미디어(Post-Medium)'를 논했다. 그는 '기억하기'와 작가 개인의 고유한 '지지체(Technical Support)'를 핵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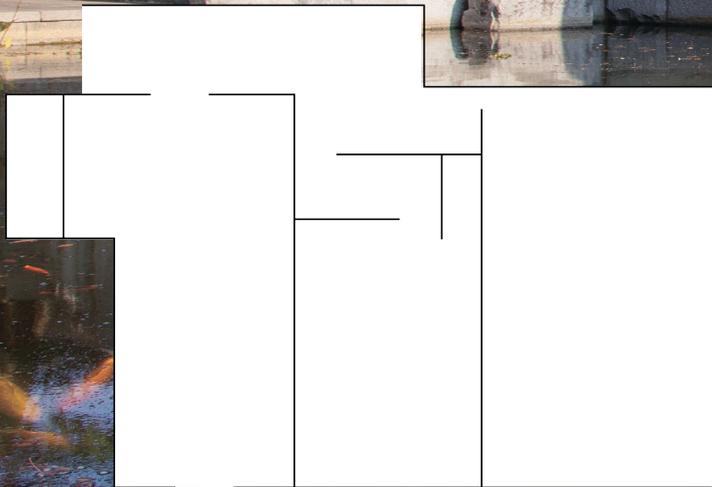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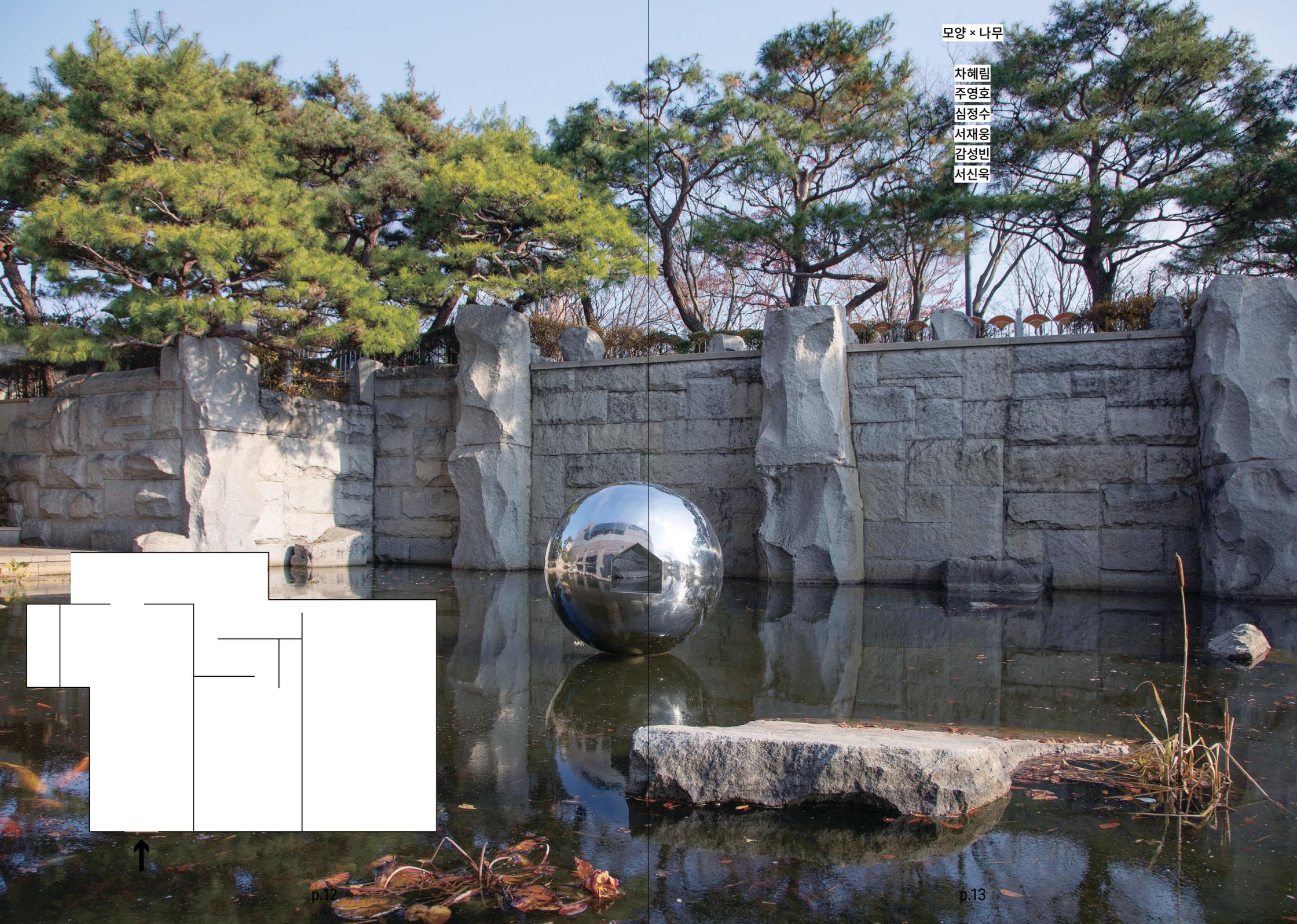
어휘로 언급하며 회화, 조각 등 특정 매체나 설치 작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연구 방식으로 내세웠다.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조슬릿(DAVID JOSELIT)은 회화라는 특정 매체에 대해 이렇게 썼다. "회화는 시간에 대해 마킹하고 저장하고 스코어링 하고 추측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조각 또한 시간성과 관련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⁴

(구) 뷔페 공간의 홀, 부엌, 별이 잘 드는 통창, 분수대를 활용한 작가들의 설치도 조각의 시간성에 대한 탐구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구) 뷔페 공간은 실외 빛이 차단되지 않은 통창의 화이트 큐브면서 일부는 그레이 존(블랙박스+ 화이트큐브)이기도 하다. 또 야외공간이 공존하는 (구) 뷔페 공간 안팎에서 관객들은 창문 너머 야외 분수대의 설치 작업과 전시장 앞에 배치된 3미터 높이의 조각을 볼 수 있다. 과거 뷔페였던 공간에 아직 남아있는 부엌의 타일, 샐러드를 나누었던 검은 기둥이 보이는 공간은 여기 성산아트홀 뷔페에 녹아 들어있는 사회적 약속과 움직임의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은 산책, 걷기, 생일과 기념일 등을 비롯한 제의(RITUAL)는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언제나 종종 내일의 날씨부터 내년이라는 미래를 말하지만 그 시간 범위는 때로 너무나 짧다. 전시장에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대화하고 제작한 강신대의 인터뷰 영상 <미래에 대해 말하기>(2023)는 이이오카 리쿠, 제이슨 위, 테사 마리아 구아존의 아시아 기반 큐레이터가 말하는 조각과 창원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멀리서 온 일종의 편지이기도 한데 마치 창원이라는 조각의 도시에 한 번쯤은 와본 듯, 해외(타지)에서 보낸 이들의 목소리가 유독 생생하다. 해외 큐레이터들은 조각의 미래를 묻는 나의 질문에 소리를 만드는 조각, 은하수를 그린 일본 소설가의 이야기, 조각에서 관람자가 '청자' 이거나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등을 들려준다. '조각'이라는 예술 언어가 인류 공통의 언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모양 × 나무

차혜림
주영호
심정수
서재웅
감성빈
서신옥





차혜림은 동시대 미디어와 매개되어 있는 커뮤니티와 사회, 개인의 관계를 통하여 정보화 사회 속 개별자로서의 개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차혜림의 작업은 작가가 창작한 다양한 층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며, 각각의 페인팅과 오브제 작업들은 동시대 미디어의 수많은 정보들을 발견,

맵핑하고 재해석하여 이중 삼중의 레이어를 통한 비선형적이고 문학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제시되는 방식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시대의 거대한 정보들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열린 구조의 방식으로 엮어낸 전시 공간 자체는 이점과 분절, 접합과 횡단을 통하여 읽고 쓰기의 또 다른 방식으로 전환된다.



1.a

1.a <The Coconut Girl>, 2023, 창원에서 구입한 산업용품들(메일커넥터, 텡스텐봉연마기휠, 벨크로테이프, 샌딩페이퍼, 그라우팅 용기, 철엘보, 버팀목, 휠브러쉬, 와이어, 빵끈, 실리콘빨대, 우레탄 호스 등), 가변크기

1.b <디 아티팩트: 알파벳 0층부터 z층까지 존재하는 artifact 목록들>, 2022, 혼합재료, 가변크기



1.b

1.a <The Coconut Girl>, 2023, 창원에서 구입한 산업용품들(메일커넥터, 텡스텐봉연마기휠, 벨크로테이프, 샌딩페이퍼, 그라우팅 용기, 철엘보, 버팀목, 휠브러쉬, 와이어, 빵끈, 실리콘빨대, 우레탄 호스 등), 가변크기

1.b <디 아티팩트: 알파벳 0층부터 z층까지 존재하는 artifact 목록들>, 2022, 혼합재료, 가변크기

주영호는 창원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현실을 비추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소재를 통해 점자(Braille)와 점(Dot)을 이용해 이성과 감성을 지닌 모습과 꿈꾸는 인간의 모습, 그 의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반인들에게 읽히지도 못하고 대중에게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는 점자라는 존재는 늘 어딘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던 스스로를 닮은 듯 형상화한다. 주영호의 점 두 가지는, 현실 속의 점 그리고 희망하는 점이다. 현실 속 주영호의 점들은 그대로 드러나길

망설이기에 비밀스럽게 기호화시켜 의미를 남긴다. 스테인리스는 차가운 현실을 비추는 거울 같은 소재이다. 점자와 점으로 이성과 감성을 지닌 모습, 더불어 꿈꾸는 인간의 모습들을 비추고자 한다. 주영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점자, 소수의 언어를 빌린다는 것이 타인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의미하듯이 작품이 관람자와 함께 서로에게 의미를 찾는 시간이길 바란다.



2.a

2.a <시작:점>, 2021, 스테인리스 스틸, 100×100×100cm

2.b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2021, 스테인리스 스틸, 오석, 대리석, 동, 30×30×30cm (5)

2.b



조각가 심정수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인하대, 숙명여대, 단국대, 영남대, 경북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를

역임했으며, 서울조각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수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수십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3.a



3.b

3.c

3.a <아! 고구려-불꽃>, 2003, 나무, 스테인리스 스틸, 244×440×40cm

3.b <조개껍질>, 2003, 나무, 208×50×11cm

3.c <물에 비친 청산>, 2003, 나무, 60×210×10cm

서재웅은 음양오행론을 알게 되면서 순환을 통한 조화와 균형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나무를 통한 조각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동시대 생태와 기후위기는 순환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면에 자리한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4. c ~ g

- 4.a <화석을 든 손>, 2022, 나무, 화석, 쇠, 116×34×32.3cm
- 4.b <벼락신>, 2022, 나무, 채색, 130.2×133.2×94.6cm
- 4.c <루시의 종>, 2023, 나무, 채색, 33×31×13cm
- 4.d <걷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023, 나무, 채색, 23×11.6×3.9cm
- 4.e <디메트로돈>, 2023, 나무, 채색, 11.7×30.5×3.3cm
- 4.f <틱타알릭>, 2023, 나무, 채색, 11.5×28×4.1cm
- 4.g <우드 와이드 웹>, 2023, 전시장 벽에 아크릴 과슈, 가변크기



4.a



4.b

1983년 창원에서 태어난 작가는 창원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수년간 창원공단에서 일했다. 이 경험은 현실 세계의 모순을 조각으로 다루는 현재의 방법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6년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공부를 시작했고, 2012년 귀국해 목장 경영과

작업을 병행하다가 현재 작가로 활동한다. 작가는 나무 특유의 만들기 질감에 천착하여 오늘날의 그리기와 만들기의 관계를 탐구하며, 조각과 함께 회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5.a



5.b

5.a <face>, 2023, 수지에 유채, 각 34×34cm (20)
5.b <가족>, 2023, 수지에 유채, 110×46×155cm



서신욱은 Central Saint's Martins과 Slade School of Fine Art에서 순수미술과 조각을 공부하고, 현재 영국과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신욱은 사회 시스템과 인간 개인의 필연적 상호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각의 언어로서 시각화한다. 최근 The Contemporary Art Museum of Luxembourg와 영국의 Zabłudowicz Collection 등에서 전시하였고, 2020년에 Royal Society of Sculptors에서 주최한 Gilbert Bayes Award를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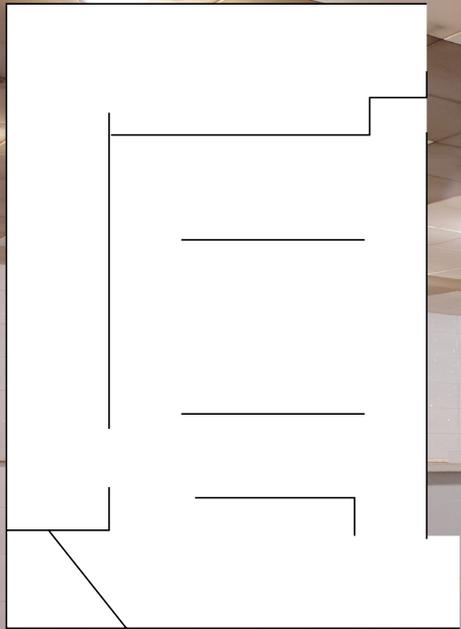
6.a <Six Feet Under>, 2022, 철, 모터, 모터 컨트롤러, 실리콘, 350x250x260cm

6.a <Six Feet Under> 상세 이미지, 2023



모양 × 지도

김익현
박소라
최고은
김계옥





김익현은 과거-현재라는 시간과 나노미터로 보는 세계, 글로벌 가치 사슬 등 극적으로 크고 작은 단위들의 연결과 단절을 사진과 영상 매체를 통해 추측한다. 이동(Mobility)의 체감과 개념을 새로이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연결하고 분절하는 존재를 기억, 상상, 관찰한다. «머리 비행»(경기도미술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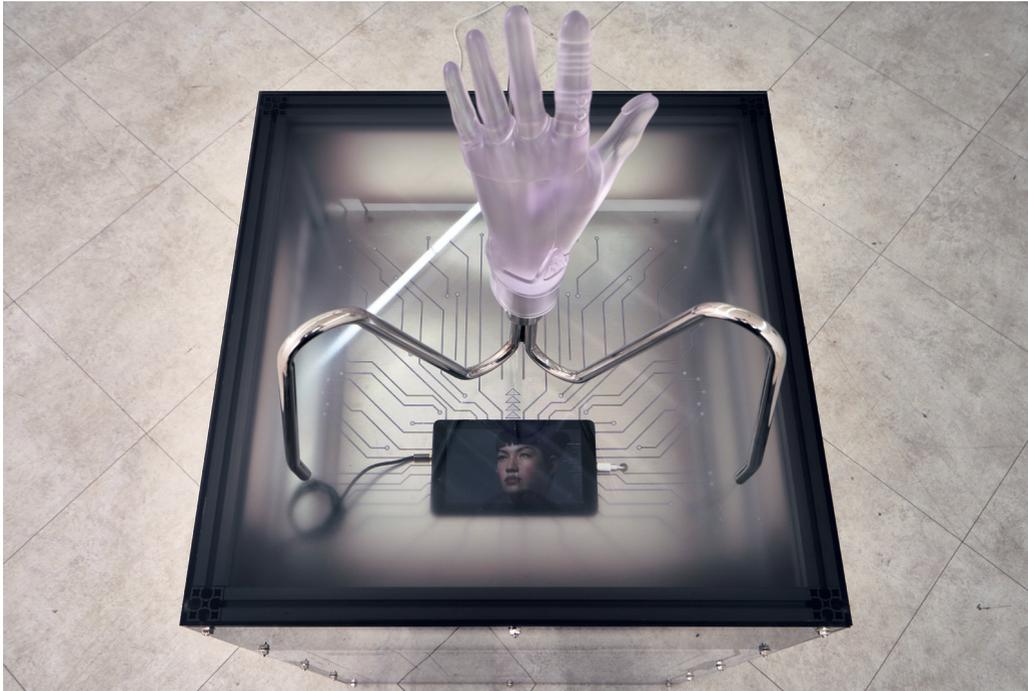
«Looming Shade»(산수문화, 2017)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물결 위 우리», (부산비엔날레, 2022), «투유:당신의 방향»(아르코미술관, 2022), 미디어시티서울 2016 등 다수의 국제전 및 단체전에 참가했다. 2017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7.a <LINK PATH LAYER>, 2016,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224×280cm
7.b <일영(日影)>, 202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19초



박소라는 인간의 신체가 기술을 통해 개발되는 현상과 소셜 미디어, 메타버스와 같은 동시대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최근 프로젝트에서는 공상 과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현재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인물상, 상품 등을 상상하고, 이를 조각과 영상, 설치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각화하고 있다.



8.a <Soft Touch> 상세 이미지, 2022

8.a <Soft Touch>, 2022, 아크릴, 레진, 스테인리스 스틸, 비디오, 5분 1초, 146×61×61cm



최고은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조소를 공부했다. 2016년 첫 개인전 «토르소
Torson»(김종영미술관)를 열었고, «오렌지 포디움
Orange Podium»(시청각, 2018), «오전 11시의 각성
Disillusionment of 11am»(토마스 파크갤러리, 뉴욕,

2019), «비비드 컷츠 Vivid Cutsa»(P21갤러리, 2021),
«코너링 Corneringo»(아마도예술공간, 2022)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며 서울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 9.a <트로피 1>, 2023, 수도 설비 동파이프, 104×55×200cm
- 9.b <트로피 2>, 2023, 수도 설비 동파이프, 143×70×170cm
- 9.c <글로리아>, 2023,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에 도금, 인조대리석, 126×117×1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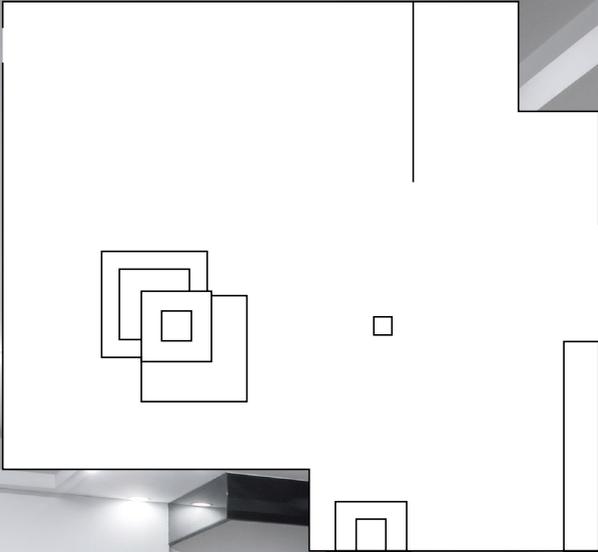
2007년 Royal college of art에서 금속공예학과를 졸업하고, 컨셉추얼 장신구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오브제, 설치 작업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며 작업하고 있다. 2021년 Loewe Foundation craft prize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고, 서울 공예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열리는 대규모 기획전 «시간의 형태 : 1989년 이후 한국 미술» 전에 참여했다.

10.a <second surface>, 2019-2023, 동, 금박, 250×340cm (5)



잭슨
이담미
크리스 로
정현
이동훈
정희민
이병호







잭슨홍은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중첩된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과 설치미술, 조각과 장식미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리적 대상들과 그 이면의 역사적 맥락, 추상적 질서를 고안하고 제작해 왔다.

왼쪽부터 e, b, c, d, a



- 11.a <Samples>, 2023, 철, 분체도장, 80×160×10.8cm
- 11.b <Flat>, 2023, 철, 분체도장, 79.8×89.6×17cm
- 11.c <BR-15>, 2021, 철, 분체도장, 31.8×65.4×12cm
- 11.d <BR-16>, 2022, 철, 분체도장, 71×80×18.1cm
- 11.e <BR-17>, 2022, 철, 분체도장, 62×104(208)×15.3cm

이다미는 건축사무소 플로라앤파우나 Flora and Fauna를 운영한다. 식물, 동물, 정물, 건물을 통해 공간과 관계를 작동시키는 물질의 존재 방식을 탐구하며 다양한 크기와 재료, 시점을 통해 건축의 최소와 잉여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12.a <드랙 뮤지엄>, 2023, 혼합재료, 가변크기

크리스 로는 디자이너이자 그래픽 아티스트다. 시애틀에서 태어난 크리스 로는 UC버클리에서 건축을,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ISD)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건축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혼성된 경험은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며 탐색하는 그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작품은 움직이고, 공간을 활용하며, 시적이고 분위기를 자아내는 특성을 지니는데, 다른 차원에서의 움직임, 공간의 개념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른 차원의 움직임과 공간이 평면이라는 보다 정적인 표면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탐구한다.



13.a <Music That You Can Do Nothing To>, 2021-2023, 종이에 아크릴, 알루미늄, 와이어, 철, 폴리카보네이트, 647×372×321cm

조각가 정현은 인천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홍익대학교 조소과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국내외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수십여 개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4년 제1회 오늘의 작가(김종영미술관), 2006년 올해의 작가(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선정됐으며, 2014년 제28회 김세종조각상(김세종기념사업회) 등을 수상했다.



14.a

14.a <서있는 사람>, 2016, 나무, 철, 각 68×53×370cm (3)

14.b <무제 6>, 1996, 레진, 철, 60×67×215cm

14.b



14.a <서있는 사람>, 2016, 나무, 철, 각 68×53×370cm (3)

14.b <무제 6>, 1996, 레진, 철, 60×67×215cm

주로 식물, 동물, 인물 등을 조각하고, 조각한 대상을 보고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한다. 대상을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조각된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며 어떻게 그릴 것인지 고민하며 작업한다.



1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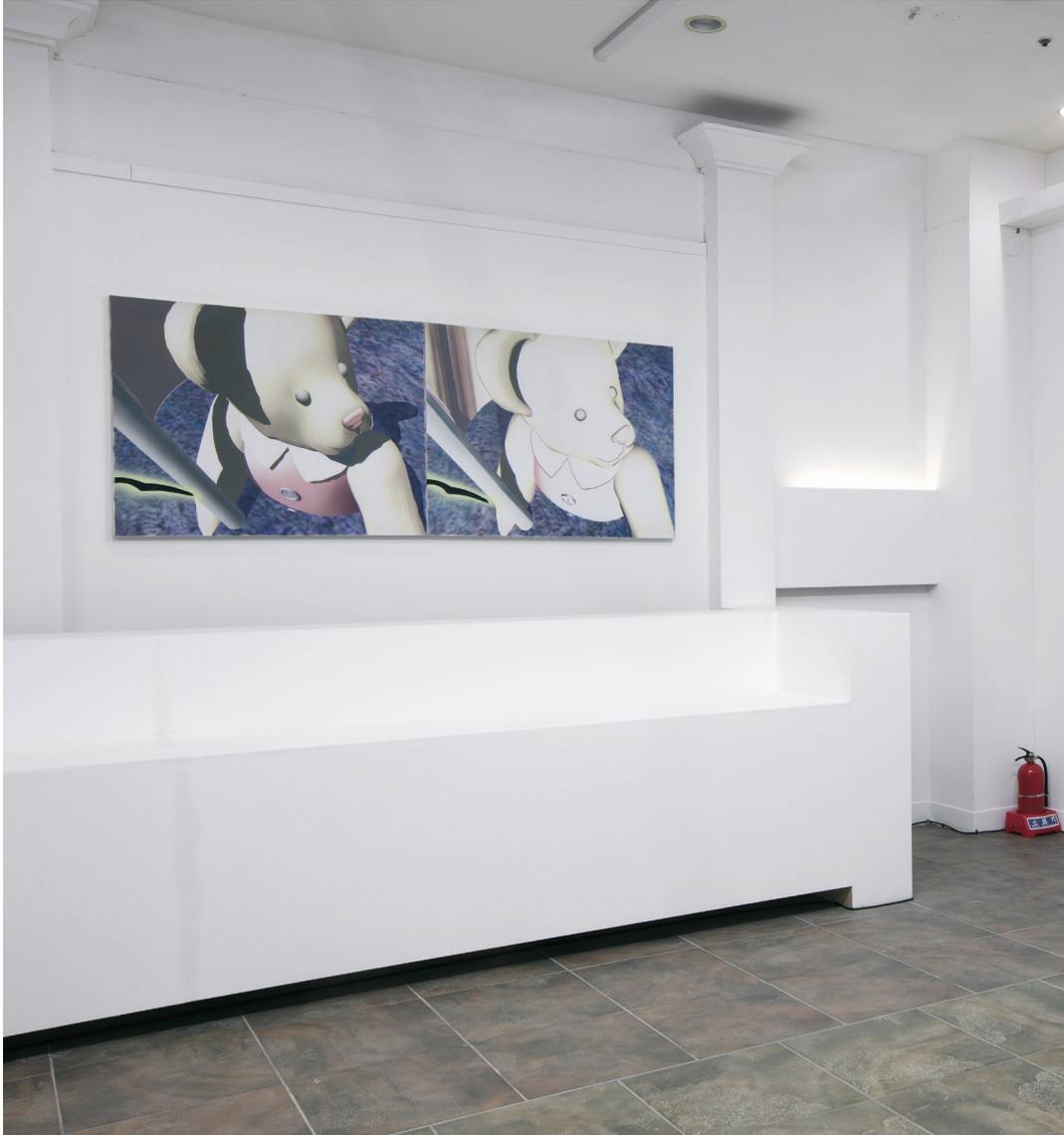
15.b

- 15.a <화병>, 2019, 잣나무에 아크릴, 78×53×53cm
- 15.b <백합, 카네이션과 강아지풀>, 2023, 느릅나무에 아크릴, 65×37×37cm
- 15.c <왕부리새와 아레카 야자>, 2019, 잣나무에 아크릴, 172×40×40cm
- 15.d <화분>, 2020, 잣나무에 아크릴, 45×50×42cm
- 15.e <선인장>, 2019, 잣나무에 아크릴, 97×45×45cm
- 15.f <글라디올라스, 베로니카와 용담초>, 2023, 느릅나무에 아크릴, 61×41×36cm



정희민은 도시와 기술이 매개하는 사회에서 변화하는 시각의 방식에 대해 질문하며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물질을 통해 탐색한다. 주로 회화의 관습적 대상들을 동시대적 시각 환경의 맥락에서 비-평면의 조형 방식으로 재구성하며 기술이

일으키는 형이상학적 사건들 속에서의 디지털적 정동, 시간적 경험, 자기동일성의 문제 등에 시적 접근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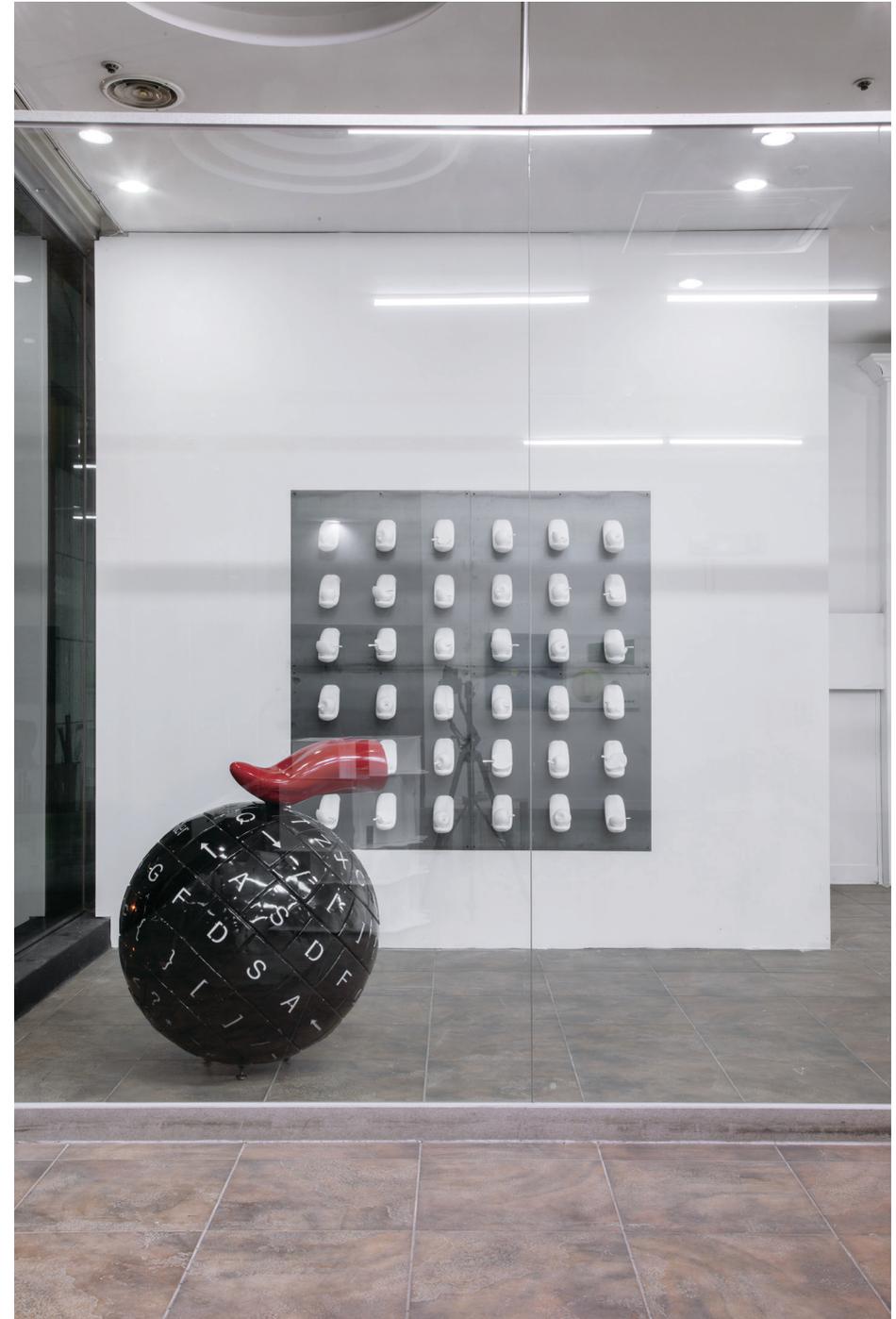


- 16.a <테디 1,2>, 2018, 캔버스에 아크릴과 오일, 91×117cm (2)
- 16.b <어쩌면 두 개의 태양이 있을지 몰라>, 2019, 캔버스에 아크릴과 오일, 190×188cm



이병호는 마산에서 조각을 공부하고,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창세기 3장 6절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은 모든 유혹이 시작되는 표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석고와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해 사과 모양과 원구로 결합한 작품은 일상생활에 깃든 데이터와 사고의 파편 등을 구조화한다.



17.a <GENESIS 3.6>, 2023, 석고, 스테인리스 스틸, FRP, 가변크기



지도 × 나무

소목장세미
최승철
박하늘

인터뷰
이이오카 리쿠
제이슨 워
테사 마리아 구아존





소목장세미는 작가 유혜미의 활동명이자 2012년 부터 운영해온 1인 가구공방의 브랜드명이다. 그는 사라져가는 옛 전통 내장 목공 기술들과 모양들을 현대화하여 모던하게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이용해 독창적인 모습의 가구를 제작하고

다양한 공간을 시공해왔다. 2022년 리움 (Leeum)의 «아트스펙트럼» 작가로 참여하여 작가적 세계관을 넓히고 있다.



18.a



18.c

18.b

18.a <안마체어-쿠론타>, 2016, 라왕각재, 템바보드, 철파이프, 70×100×60cm

18.b <평균대 조명>, 2016, 참나무, led조명, 15×100×20cm

18.c <쿠론타 주니어1세 스톨>, 2016, 라왕각재, 템바보드, 스펀지, 천, 41×32×32cm

최승철은 창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독일에서 돌아와 창원 등에서 꾸준히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최승철은 공간, 소리, 행위를 중심으로 비디오, 설치, 조각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조각을 통해 실내외 공간, 개인과

집단의 경험을 질문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내외의 공간과 소리에 주목한 작업으로, 관객은 드럼 소리를 내는 조각을 체험할 수 있다.



19.a <tune in to the room> 상세 이미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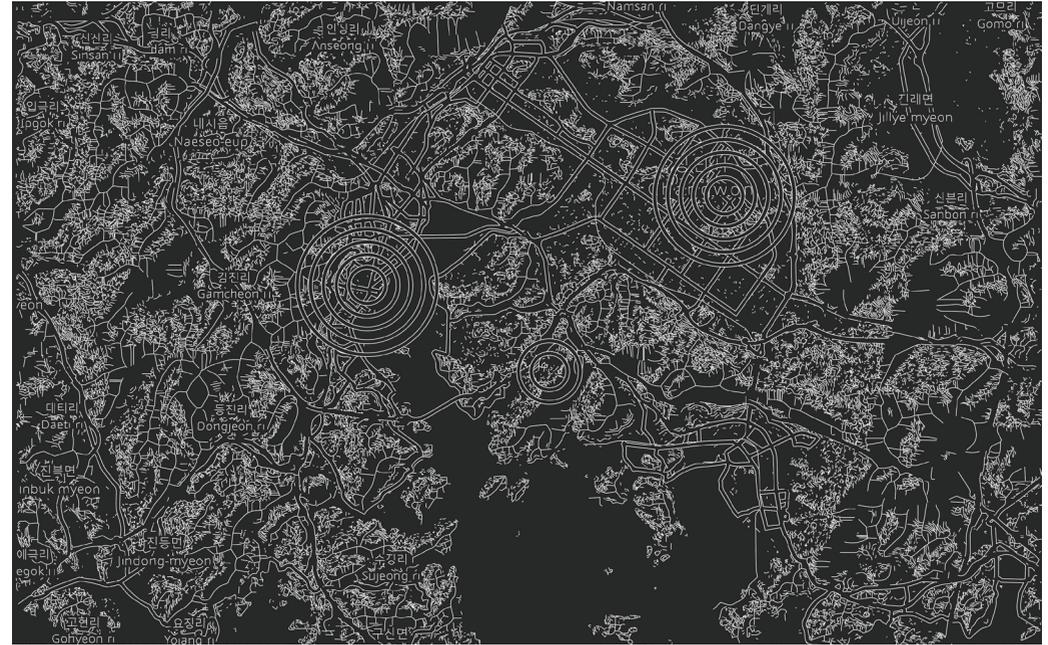
19.a <tune in to the room>, 2023, 알루미늄, 나무, 폴리에스터, 114x111x59.5cm



박하늘은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그래픽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웹 디자인, 웹 개발을 통해 디지털 환경과 관계 맺는 작업들을 주로 수행한다.



20.a <있던 곳, 있는 곳, 있을 곳>, 2023, 유리창에 시트, 220×186cm



20.a <있던 곳, 있는 곳, 있을 곳> 리서치 이미지

<미래에 대해 말하기>, 2023,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인터뷰 : 이이오카 리쿠, 제이슨 워, 테사 마리아 구야존

영상 제작 · 편집 : 강신대
인터뷰 · 번역 : 현시원

이이오카 리쿠 lioka Riku



“저는 전시를 큐레이팅하면서 늘 ‘협업적 추론 (collective speculation)’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뇌를 통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환경, 사물 및 기존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를 통해 생각하는 것이지요.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확장해 적용해보면, 큐레이팅은 결국 인간이 아닌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집단적 사고에 기반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각품은 아니지만, 미야자와 겐지의 소설 <은하열차의 밤>에 있는 그의 스케치를 말하고 싶습니다.”

— 이이오카 리쿠
(도쿄 모리미술관 큐레이터 · 저술가, 일본)



관객을 한 명의 참여자, 독자,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등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시원 예술감독이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물어보았는데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 생각해보죠. 요즘 특정 매체에 초점을 맞춘 비엔날레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몇몇 조각에 집중하는 형식의 축제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열리는 해변 조각 페스티벌이 기억에 있네요. 하지만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어요. 마치 관광 온 여행자들이 할 법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특정한 장소 제작에 관한 것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과 건축의 차이를 통해 조사하고 재구성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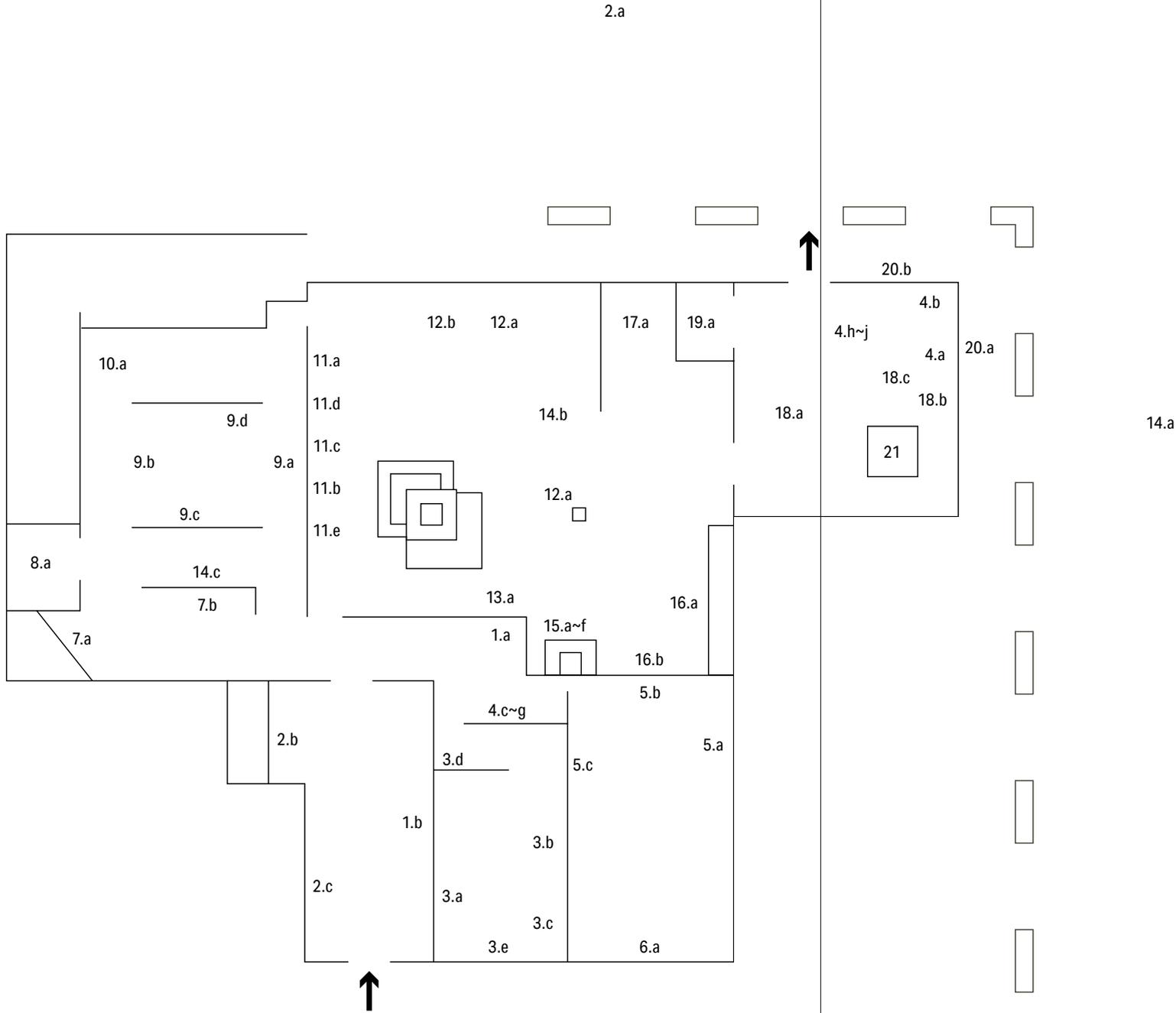
— 제이슨 위
(작가·그레이 프로젝트 디렉터, 싱가포르)



대학 부설 기관인 호르헤 B. 바르가스 미술관과
필리핀 연구 센터의 큐레이터로 일합니다

“(필리핀 예술가 존 이의 조각은) 여러 면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이것이 바로 현대미술이 삶(life)이 무엇일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예술은 '현재'를 사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가정(what-ifs)들에 맞서는 생산적인 추론(speculation)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그것이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어찌면 그 셋 사이의 교차점일 수 있는 시간 영역을 유동적으로 넘나듭니다.”

— 테사 마리아 구아존
(필리핀 대학 딜리만 캠퍼스 예술학과 부교수 ·
UP 바르가스 미술관 큐레이터, 필리핀)



1	차혜림	7	김익현
1.a	<The Coconut Girl>, 2023, 창원에서 구입한 산업용품들, 가변크기	7.a	<LINK PATH LAYER>, 2016,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224×280cm
1.b	<디 아트팩트: 알파벳 o층부터 z층까지 존재하는 artifact 목록들>, 2022, 혼합재료, 가변크기	7.b	<일영(日影)>, 202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19초
2	주영호,	8	박소라
2.a	<시작:점>, 2021, 스테인리스 스틸, 100×100×100cm	8.a	<Soft Touch>, 2022, 아크릴, 레진, 스테인리스 스틸, 비디오, 5분 1초, 146×61×61cm
2.b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2021, 스테인리스 스틸, 오석, 대리석, 동, 30×30×30cm (5)	9	최고은
2.c	<아름답다>, 2021, 스테인리스 스틸, 30×30cm (24)	9.a	<트로피 1>, 2023, 수도 설비 동파이프, 104×55×200cm
3	심정수	9.b	<트로피 2>, 2023, 수도 설비 동파이프, 143×70×170cm
3.a	<아! 고구려-불꽃>, 2003, 나무, 스테인리스 스틸, 244×440×40cm	9.c	<글로리아>, 2023,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에 도금, 인조대리석, 126×117×138cm
3.b	<조개껍질>, 2003, 나무, 208×50×11cm	9.d	<션베이크>, 2022, 수도 설비 동파이프에 도금, 150×70×80cm (2)
3.c	<물에 비친 청산>, 2003, 나무, 60×210×10cm	10	김계옥
3.d	<호랑이를 탄 사나이>, 2008, 나무, 170×40×70cm	10.a	<second surface>, 2019-2023, 동, 금박, 250×340cm (5)
3.e	<기도하는 소녀>, 1990, FRP, 198×102×35cm	11	잭슨홍
4	서재용	11.a	<Samples>, 2023, 철, 분체도장, 80×160×10.8cm
4.a	<화석을 든 손>, 2022, 나무, 화석, 쇠, 116×34×32.3cm	11.b	<Flat>, 2023, 철, 분체도장, 79.8×89.6×17cm
4.b	<벼락산>, 2022, 나무, 채색, 130.2×133.2×94.6cm	11.c	<BR-15>, 2021, 철, 분체도장, 31.8×65.4×12cm
4.c	<루시의 종>, 2023, 나무, 채색, 33×31×13cm	11.d	<BR-16>, 2022, 철, 분체도장, 71×80×18.1cm
4.d	<걷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023, 나무, 채색, 23×11.6×3.9cm	11.e	<BR-17>, 2022, 철, 분체도장, 62×104(208)×15.3cm
4.e	<디메트로돈>, 2023, 나무, 채색, 11.7×30.5×3.3cm	12	이다미
4.f	<틱타알릭>, 2023, 나무, 채색, 11.5×28×4.1cm	12.a	<드랙 뮤지엄>, 2023, 혼합재료, 가변크기
4.g	<우드 와이드 웹>, 2023, 전시장 벽에 아크릴 과슈, 가변크기	12.b	<식물 동물 건물>, 2020, 혼합재료, 가변크기
4.h	<빗해파리>, 2023, 나무, 채색, 18×10.5×10cm	13	크리스 로
4.i	<브라질로돈>, 2023, 나무, 채색, 20×8.5×11cm	13.a	<Music That You Can Do Nothing To>, 2021-2023, 종이에 아크릴, 알루미늄, 와이어, 철, 폴리카보네이트, 647×372×321cm
4.j	<리스트로사우르스>, 2023, 나무, 돌, 채색, 20×8.5×11cm	14	정현
5	감성빈	14.a	<서있는 사람>, 2016, 나무, 철, 68×53×370cm (3)
5.a	<face>2023, 수지에 유채, 34×34cm (20)	14.b	<무제 6>, 1996, 레진, 철, 60×67×215cm
5.b	<가족>, 2023, 수지에 유채, 110×46×155cm	14.c	<드로잉 연작>, 2000, 종이 위에 오일바, 80×60cm (3)
5.c	<알비노>, 2014, 수지에 유채, 40×25×40cm (2)		
6	서신욱		
6.a	<Six Feet Under>, 2022, 철, 모터, 모터 컨트롤러, 실리콘, 350×250×260cm		

15	이동훈
15.a	<화병>, 2019, 잣나무에 아크릴, 78×53×53cm
15.b	<백합, 카네이션과 강아지풀>, 2023, 느릅나무에 아크릴, 65×37×37cm
15.c	<왕부리새와 아레카 야자>, 2019, 잣나무에 아크릴, 172×40×40cm
15.d	<화분>, 2020, 잣나무에 아크릴, 45×50×42cm
15.e	<선인장>, 2019, 잣나무에 아크릴, 97×45×45cm
15.f	<글라디올라스, 베로니카와 용담초>, 2023, 느릅나무에 아크릴, 61×41×36cm
16	정희민
16.a	<테디 1,2>, 2018, 캔버스에 아크릴과 오일, 91×117cm (2)
16.b	<어쩌면 두 개의 태양이 있을지 몰라>, 2019, 캔버스에 아크릴과 오일, 190×188cm
17	이병호
17.a	<GENESIS 3.6>, 2023, 석고, 스테인리스 스틸, FRP, 가변크기
18	소목장세미
18.a	<안마체어-쿠론타>, 2016, 라왕각재, 템바보드, 철파이프, 70×100×60cm
18.b	<평균대 조명>, 2016, 참나무, led조명, 15×100×20cm
18.c	<쿠론타 주니어1세 스톨>, 2016, 라왕각재, 템바보드, 스펀지, 천, 41×32×32cm
19	최승철
19.a	<tune in to the room>, 2023, 알루미늄, 나무, 폴리에스터, 114×111×59.5cm
20	박하늘
20.a	<있던 곳, 있는 곳, 있을 곳>, 2023, 유리창에 시트, 220×186cm
20.b	<있던 곳, 있는 곳, 있을 곳>, 2023, 유리창에 시트, 213×150cm (2)
21	이이오카 리쿠, 제이슨 위, 테사 마리아 구아존 <미래에 대해 말하기>, 2023,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인터뷰 영상 제작 편집 : 강신대 인터뷰 번역 : 현시원

모양 x 나무

p. 12-3
주영호,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14-5
주영호, 차혜림,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모양 x 지도

p. 28-9
김계욱, 김익현, 박소라, 최고은,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30-1
김익현, 박소라, 정현, 최고은,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모양 x 지도 x 나무

p. 40-1
이다미, 이동훈, 잭슨홍, 정현, 정희민, 크리스 로,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42-3
이다미, 잭슨홍, 정현, 크리스 로,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44-5
이다미, 이동훈, 이병호, 잭슨홍, 정현, 크리스 로,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지도 x 나무

p. 60-1
박하늘, 서재웅, 소목장세미,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62-3
서재웅, 소목장세미, 이다미, 잭슨홍, 최승철, 크리스 로, 전시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16
차혜림, <The Coconut Girl> 2023.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17
차혜림, <디 아티팩트: 알파벳 o층부터 z층까지 존재하는 artifact
목록들> 2022.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18
주영호, <시작:점> 2021.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19
주영호,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2021.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20
심정수, <아! 고구려-불꽃> 2003.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21
심정수,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22
서재웅,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23
서재웅,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24
감성빈, <face> 2023. 이미지 작가 제공
감성빈, <가죽> 2023. 이미지 작가 제공

p. 25
감성빈,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26
서신욱,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27
서신욱, <Six Feet Under> 2022. 상세 이미지,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32-3
김익현,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34
박소라, <Soft Touch> 2022. 이미지 작가 제공

p. 35
박소라, <Sort Touch> 2022.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36-7
최고은,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38-9
김계욱, <second surface> 2019-2023.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46-7
잭슨홍,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48-9
이다미,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50-1
크리스 로,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p. 52
정현, <서있는 사람> 2016.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53
정현, <무제 6> 1996.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54
이동훈, <화병> 2019. 이미지 작가 제공. 사진: 양이언
- 이동훈, <백합, 카네이션과 강아지풀> 2023. 이미지 작가 제공.
사진: 양이언
- p. 55
이동훈.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56-7
정희민.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59
이병호, <GENESIS 3.6> 2023.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64
소목장세미, <안마체어-쿠룬타> 2016.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65
소목장세미.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66
최승철, <tune in to the room> 2023. 상세 이미지,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67
최승철.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68
박하늘. 설치 전경,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2023).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사진: 오석근
- p. 69
박하늘, <있던 곳, 있는 곳, 있을 곳> 리서치 이미지. 이미지 작가
제공
- p. 71
이이오카 리쿠, <미래에 대해 말하기> 2023. 영상 스틸.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 p. 72
제이슨 위, <미래에 대해 말하기> 2023. 영상 스틸.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 p. 73
테사 마리아 구아존, <미래에 대해 말하기> 2023. 영상 스틸.
이미지 창원문화재단 제공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

미래에 대해 말하기 : 모양, 지도, 나무
SPEAKING ABOUT THE FUTURE : SHAPE, MAP, TREE

2023년 12월 13일 — 29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성산아트홀 (구) 뷔페 공간

(재)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성산아트홀 본부 : 정인철 본부장
총괄운영 : 김태준 부장
총괄진행 : 손지영 차장
운영 : 조수경 대리
홍보 : 박한라 대리

큐레토리얼 팀
예술감독 : 현시원
큐레이터 : 최선
디자인 : 심규선
영상제작 : 강신대
전시사진 : 오석근
교정 · 교열 : 서예원

도움 주신 분들
작품 운송 및 설치 : (주)파나로드
전시 공간 시공 : 디자인지드
전시 기자재 : 진상태(닷올림)
도록 제작 : 애드 플러스
공간 스케치업 : 윤혜인

발행인 : (재)창원문화재단 조영파 대표이사
발행처 : (재)창원문화재단
발행일 : 2023. 12. 13.
주최 · 주관 : 창원특례시, (재)창원문화재단

이 도록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창원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성산아트홀 (구) 뷔페 공간**

